

## 오피니언

## 데스크 시각

김미은



필자는 12월 말 서울역에 있었다. KTX를 타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겉은 천으로 가려진 요상한 가면 같은 것을 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서울역 안을 거닐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몰려 있는 대형 TV 스크린 앞에 남겨졌다. 이어 누군가가 가면을 확 벗었고 사람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순간, 잠시 당황했으나 피식 웃음이 나왔고 아무렇지 않은 듯 가면을 벗긴 이와 함께 역사를 빠져나갔다.

## 쇼킹한 문화 체험

이날 필자는 서현일 작가가 진행한 퍼포먼스 '망각의 도시'의 관객이자 참여자였다. 40여분간 진행된 퍼포먼스의 시작은 현재 문화공간으로 활용 중인 옛 서울 역사. "이 문안으로 들어서면 공연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공연'이 시작됐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스텝이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겉은 망토를 입혔다.

귀에는 이어폰을 끌어주었다. 세 명의 퍼포머와 함께 옛 서울역사 대합실, 여러 갈래로 뻗은 철로 어디가로 떠나기 위해 멈춰서 있는 기차 앞을 오가며 대화를 나누고 액션을 취했다. 수시로 겉은 천이 눈을 가렸고, 어딘가로 이동됐고, 훈잡한 KTX

## 서울역과 청주 담배공장

역사에서 공연은 끝났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이런 형식의 문화 체험은 쇼킹했다. 마지막 상황이 약간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지난해 방문했던 청주 연초제조창은 인상적인 '공간'이었다. 한창 때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 전국 최대 규모로 이를 품 날렸던 이곳은 10여년간 버려진 '담배공장'에 불과했다. 이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건 청주국제공에비엔날레였다. 건물 건립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65개국 참여작가 작품 4500여점을 전시했

는 작품 보관 장소를 물색하던 미술관들은 청주시의 적극적인 제안을 받고 수차례 실사를 벌였다.

비엔날레 상설관, 미술·영상·뮤지컬 창조교실 운영 등 담배공장을 '아트 패토리'로 활용하겠다는 청주시의 복안은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로 탄력을 받게 됐다.

새해 첫 칼럼을 쓰면서 두 사례를 언급하는 건, 올 광주 문화계에 바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가장 아쉬운 게 '망각의 도시' 같은 실험적인 작품이 거의 등장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거칠 없는 상상력으로 가슴 뛰게 하고, '아'하고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화행사를 찾기 어렵다. 뻔한 기획에, 예측 가능한 결말. 도통 재미가 없고, 활기도 없고, 묵직한 울림도 없다. 지난해 극단 '진달래 피네'가 진행했던 '사랑 플러스' 시리즈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본 게 그나마 작은 성과였다.

## 젊은 예술가여, 끼를 발산하라

올해는 번뜩이는 재기로 무장한 문화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중견예술인들의 작품활동과 함께 발칙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젊은 예술가들의 활약이 보고 싶다.

광주일보사는 '판'을 깔아보려 한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젊은 예술인 시리즈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기획이다.

또 하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에

도 청주의 '담배공장'은 많다. 전남방직 공장, 옛 광주수구청사,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양립동의 선교사 사택 등 구석 구석 찾아보면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곳들이 부지기수다.

이미 대인시장을 멋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화려한 전적이 있으니, 성공 가능성은 꽤 높지 않을까.

〈문화부장〉mekim@kwangju.co.kr

## 시설

## '부실 투성이' 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9월 말 기준) 건수는 103건에, 가해 학생 수는 3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건수 당 가해학생이 4명 가량이나 돼 '왕따'는 물론 집단적 폭력이 이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9명과 57명에 불과했지만, 중학생이 3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중학교 내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 주고 있다. 이번에 광주와 대구에서 잇따라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부른 당사자들도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절실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예방 대책이나 사후 대책 등은 사실상 걸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으나 효과는 제자리 걸음을이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는 상·하반기 2시간 교육이 전부다. 일반교사를 담당교사로부터 영수료를 비롯한 교육비를 통합하고, 재발방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지역 中企 실업대란 속에 구인난이라니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는 오히려 사립을 구하지 못해 이를 태우는 지역 고용시장의 '미스 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이 광주·전남지역의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3109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1년 하반기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미충원 인원은 63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 증가한 것이며, 미충원율은 16.3%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미충원 인원은 광주 3307명, 전남 291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2.8%, 31.4% 증가했다. 미충원율은 광주 15.6%, 전남 18.2%로 전년보다 1~3.5%포인트 상승했다. 구인에 나선 지역 기업들이 10명 가운데 2명꼴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셈이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기업들이 영세해 임금을 비롯한 근로여건이 여타 지역이나 대기업에 비해 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미충원 이유를 보더라도 광주 31.6%, 전남 23.4%가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의 주된 요인인 것이다.

구인난은 곧 구인 경쟁에 따른 기업들의 출혈 과다 등 경영난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역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회사에 진정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영세업체의 근로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취업 눈높이를 낮추는 구직자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 無等 鼓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난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소련은 이듬해인 1940년 4~5월 폴란드 군 장교와 경찰, 대학교수, 성직자, 의사 등 2만2000여 명을 끌고나와 학살했다. 러시아 서쪽 스몰렌스크 인근 카틴 숲에서 벌어진 이 대량학살(Genocide)은 '폴란드가 다시는 소련에 대항할 수 있도록 엘리트들을 모두 처형하라'라는 스탈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폴란드 장교의 처형을 담당한 소련 비밀경찰 NKVD의 소령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블로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형집행자'로 기록되어 있다.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 당시 혼자서 수만 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그는 카틴 숲에서도 28일간 6000여 명을 총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깃털모자를 쓰고 도살업자처럼 가죽으로 된 긴 앞치마, 팔꿈치까지 오는 장갑 등 특유의 복장을 갖춘 그는 자신의 발터 PPK 권총으로 처형자의 두개골 아래를 쏘았다. 블로흐는 워낙 일을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평균 3분마다 한 명을 살해했다고 한다. 국제연합은 지난 1944년 미국 전쟁부에 근무하던 폴란드 출신 학자 라파엘 렘킨이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Genocide(대량학살)'의 개념을 받아들여 1948년 '대량학살 협약'을 채택하고 대량학살을 국제범죄로 선언했다.

인류 최악의 범죄로 단죄되어야 할 대량학살은 그러나 형태와 이름만 달라졌을 뿐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저질러지고 있는 진행형 범죄다. '제스민 혁명'이 불붙은 중동 민주화 현장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독재자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것이 좋은 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북한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동족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잃어가고 있다. 한 개인,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수많은 목숨이 헌생되는 무참한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기고

## 교사에게 자율적 지도권을 주자



하영직

모 교육, 각종 매스컴의 무차별한 보도에 그 원인을 들 수 있으나, 생활 지도를 하기 힘든 학교 교육에 더욱 비중을 두고 생각했으면 한다.

오늘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지적 역량을 기르는 데 관심을 둘 뿐 그들의 사회 작용적 능력이나 인간관계 지향 능력에는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본 지식이나 응용 지식에 실용 지식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학교 환경이 문제인 것이다.

수업 중 해찰을 부리는 행동, 옆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자율권이 사라졌고, 자칫하면 학부모의 강한 압력에 시달리기 일쑤인 오늘의 학교 환경은 생활 지도의 부재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급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 괴롭힘을 가하는 학생은 가정에서의 부모, 학

교에서의 선생님의 관심에 의해 가능하면 빨리 발견하여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도시락을 싸고 선생님과 교실에서 같이 나눠 먹고, 평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책걸상을 나르고, 조희·종례 시간이 지루하기는 했지만 그때 들었던 훈화 한마디, 등교 때 복장 위반으로, 지각을 하여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돌던 시절을 오늘의 선생님들은 생각했으면 한다.

그리고 학벌도, 실력도 지금보다 부족했던 그 시절에도 선생님만은 자녀를 가르친 고마운 분으로 생각하고 존경했던 그때의 부모님을 오늘의 학부모는 생각했으면 한다.

학교 폭력의 예방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설치, 상담교사 배치, 학교도우미 임용, 경찰 순회, 강력한 처벌, CCTV 설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답답이나 교과 담임에 자율적

인지도권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의 교육력이 학급 학생들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등 모든 교육활동에 충분히 미칠 수 있는 학교 교육 풍토가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생각하자.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학부모가 있는 한,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마침내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 청소년들은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자율에는 학계와 선택, 그리고 책임이 중요함도 생각해야 한다. 이 같은 학계와 선택, 책임은 학생의 둘이나 가치관이 정립되거나 그들에게는 부모나 선생님의 교육적 지도가 따라야 할 생각자다. 한계와 선택은 어느 정도의 통제와 규제가, 책임은 자율에 의한 학교를 생각하는 교육 풍토가 이루어질 때 "보고 싶은 선생님",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이다.

〈미래로 학교교육 도우미 대표〉

제가 만들어낸 나운 게 아닌가.

그럼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돋아 3달에 3천만 원씩이나 하는 약값을 들여야 한다면 이걸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국가이고, 산모나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워 약을 먹기 전에는 아기를 지워야 한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산모들이 아심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두 생명을 다 살려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 주사제에 대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조아·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 희귀질환 폐동맥 고혈압 주사제 건강보험 적용해야

기도 넣은 산모들이 많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값이 너무나 비싼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아 한 달 약값만 천만 원을 넘는데 안전하게 출산을 하려면 주사제를 적어도 3개월은 써야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이 드는 것이다.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90%는 20~30대 가입기 여성이다. 희귀 난치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해 약을 개발하고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치료제나 치료의료를 개발하지 못해 정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 폐동맥 고혈압은 천만 다행으로 치료

##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면 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룩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기획 사 암 국 2200-55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